





### 기획시리즈 첫회

# 노골화되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국제정세

우리는 지금 격변하는 세계속에서 살고 있다. '소련식 사회주의의 몰락'이 냉전의 해체를 가져왔고, 이로부터 파급되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흡사 구한말의 노골적인 외세의 간섭이 또다시 이땅에서 재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민족자주·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주체적으로 분석, 조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어느때보다 통일의 기운이 넘치는 우리의 땅 한반도, 그러나 그 통일의 기운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모두가 민족의 미래를 자주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의식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있으며 국제정세에 있어 탈냉전화, 평화공존이라는 흐름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소련의 이러한 변화는 89년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을 통틀어 시키게 하는 중요한 외부요인이었음과 동시에 소련내의 강경보수세력의 쿠데타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요인중의 하나이다. 또한 소련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소련 내부문제의 지류책은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의 추종국으로서의 위

대한 간섭을 강화해 나가려 하는 것이다. 또한, 소련의 경제파탄과 기존연방제도의 붕괴는 외부적으로 북한·쿠바등과의 관계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지난 6월 "소련과 쿠바의 관계가 현재 조정되고 있다"며 경제관계중심으로 외교정책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



### 글심는 차례

1. 국제정세 개괄
2. 변화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
3. 사회주의의 변화와 대응
4. 북한의 현실노선
5. 남한의 흡수통일노력과 미국
6.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7. 현실적인 통일방안과 그 전제조건
8. 종말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구시대적 신화를 깨뜨리는 장면을 연출 여유조차없이 목격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북한이 발표한 '유엔가입신청'과 소비에트연방의 '보수적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을 상대로 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실 패한 후 소비에트연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즉 '연방의 해체' '공산당 활동정지' '시장경제로의 이행' 등의 소련식 사회주의의 몰락이 그것이다.

북한의 유엔가입신청은 그동안 북한이 내세웠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분단영구화'라는 공식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는 데서 북한의 변화를 엿보게 한다. 그러나, 북한이 흔히 말하듯 미국과 남한의 외교공세에 원칙을 포기했다기 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속에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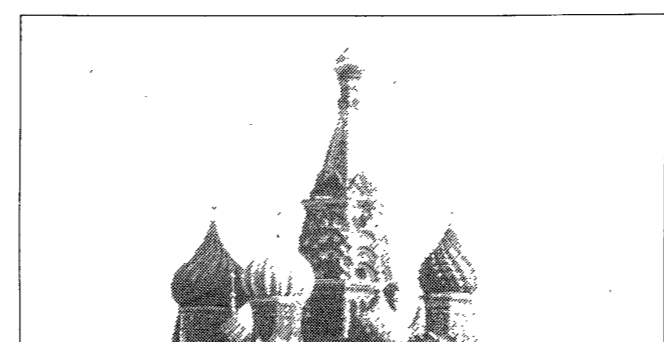
분석하고 바람앞에선 촛불과 같은 민족의 운명을 모두 함께 걱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결프전쟁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페레스트로이키 이후 제기된 평화공존의 분위기는 소련을 현존하는 강력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는 냉전논리로 세계질서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던 미국의 입지를 상당히 좁게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미국은 경제적 쇠퇴를 예고하는 많은 경제지표들-예를들어 미국의 세계 GNP 점유율 감소, 지속적인 생산성 하락, 무역과 재정적자의 기록적 확대등-과 소련이라는 위협이 사라진 상태에서 엄청난 군비를 유지하고 전지구적 전략을 수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는

해 주었다. 시리아에는 10억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터키에는 90억달러의 군사원조와 수출쿼터 증액을 약속했다. 중국에는 세계은행으로부터 1억달러의 용자를 받아주기라고 청안사태이후 냉각됐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댓가를 지불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은 결프전에서 일본·독일등의 전비를 가지고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이에따라 미국주도의 '신세계질서'는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재편되는 세계질서 소련식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미국은 50~60년대 대식 패스메리카나의 맹주가 되어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의 재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붉은광장 앞에서 러시아공화국의 3색기발을 흔들며 시위하는 소련국민들.

치를 상실케함으로써 제3세력의 반제국주의전선에 큰 균열점으로 작용했던지도 사실이다. 결프전은 이러한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건으로 소련이 발트3국의 독립요구에 직면해 유엔을 통한 미국의 구도에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미국의 신세계질서는 비로서 가시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소련이 겪고있는 위기, 즉 파산적전의 경제상황, 구성공화국의 독립에 따른 연방체제의 위기, 공산당파와 강경보수세력과의 마찰등은 소련지도부의 위기와 동시에 국제정세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한것이다.

북한·쿠바·베트남의 항방일 것이 소련사회주의의 몰락이 이들 '민족해방사회주의의 4인방'의 위상과 앞으로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현실이 이들의 입지를 좁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사회주의의 고수'와 경제개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4월 중국인민군을 조사한다며 중국을 방문해, 천안문 광장에서 천안문사태관련희생자 추모식을 가진 미의회의 의원들에 대하여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이에따라 미·중관계는 악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결프전쟁후 부시는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결프전은 '신세계질서'의 전방이 존재하는, 다가오는 신세계의 첫번째 시험대였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냈다. 즉 군사적, 이념적 대결상태를 제정했던 냉전의 종식이 미국에게 던지는 의미가 경제적 쇠퇴의 경향을 더이상 군사와 정치로 막아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라면 결프전은 여전히 군사력의 중요성을 과시함으로써 냉전체제이후의 세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신세계질서'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세계질서'라는 단어를 유희시킨 미국주장 베이커는 의외로 "우리의 전략은 세계적 동맹을 이끄는 것이다. 세계는 유엔헌장에 합류된 원칙을 방어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이노에서 미국은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우

한반도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어느때보다 통일의 기운이 넘치는 우리의 땅 한반도, 그러나 그 통일의 기운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모두가 민족의 미래를 자주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의식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치를 상실케함으로써 제3세력의 반제국주의전선에 큰 균열점으로 작용했던지도 사실이다. 결프전은 이러한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건으로 소련이 발트3국의 독립요구에 직면해 유엔을 통한 미국의 구도에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미국의 신세계질서는 비로서 가시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소련이 겪고있는 위기, 즉 파산적전의 경제상황, 구성공화국의 독립에 따른 연방체제의 위기, 공산당파와 강경보수세력과의 마찰등은 소련지도부의 위기와 동시에 국제정세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한것이다.

북한·쿠바·베트남의 항방일 것이 소련사회주의의 몰락이 이들 '민족해방사회주의의 4인방'의 위상과 앞으로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현실이 이들의 입지를 좁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사회주의의 고수'와 경제개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4월 중국인민군을 조사한다며 중국을 방문해, 천안문 광장에서 천안문사태관련희생자 추모식을 가진 미의회의 의원들에 대하여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이에따라 미·중관계는 악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변화흐름, 민족자주적 통일에 부정적 영향

### '신세계질서'...냉전의 해체아닌 미국주도의 신냉전체제

### 급변하는 정세 주체적 평화적 관점 요구해

미국적 압력에 직면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반적인 지위하락과 미국내의 압력, 그리고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은 새로운 위협을 창출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교묘하게 맞아 떨어졌고, 미국은 결프전을 통해 세계질서의 주도자로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많은 전제가 필요했다. 소련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 아랍세력의 단결을 막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독일과 일본등의 동맹국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등의 조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소련의 발트3국 독립요구에 대한 진압을 묵인하고 경제지원을 약속했으며 이 점에 의해 1백40억달러를 면제

리 국민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필요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수단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다. 오직 미국의 개입만이 우리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시는 "우리는 미국이 말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의 신세계 질서에는 무법적인 침략이 설치되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위의 언급과 결프전에서의 동맹국에 대한 전비부담능력 등으로부터 부시의 신세계질서구상의 핵심이 세계적 동맹, 그속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 그리고 선진국간의 동맹한 책임분담담임을

일수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사실상 소련식 사회주의의 몰락이후 냉전이 해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주도하의 신냉전이 창출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정한 책임분담 혹은 의존이라는 것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위해서는 소련과 동맹국들의 협조가 요구되어진다는 의의 미·소·동맹국간의 관계가 동반자적 대등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신세계질서는 어떤형태로 관철될 수 있을까. 미국은 결프전에서 나타났듯이 군사기술상의 우위에 기초하여 서방동맹체제의 동원과 소련의 협조

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관철시켜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동맹국들의 재편(이집트·시리아의 병렬미군, 그리고 결프협력국의 재정)이 결합하는 지역안보체제와 나토에서 승인된 '신속대응군'의 창설로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집단안보체제의 특징은 미군사력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미국의 재정은 줄어들다는 점인데 이것이야말로 신세계질서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 소련사태의 의미와 파급효과

고르바초프 집권이후 추진되어온 페레스트로이키는 소련사회를 급격한 개혁의 물결로 휘몰아치게 만들

### 고추 직거래 안내

고추의 명물 증북제천 고추  
동국대학교 직행하다!!!  
순 참기름도 함께 오다!!

판매품목: 고추, 참기름  
판매장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앞  
(지하철 동대입구역에 하차하여 학교 교문입구에서 안내 표지를 참고 하십시오)  
판매기간: 통일염원 47년 9월 9일~17일까지  
포장: 10근 단위로 포장판매  
(100근 이상 배달가능, 일요일도 판매)  
가격: 고추 1근당 최상품: 5,500원, 상품: 4,500원  
참기름 2호병 8,000원  
문의처: 267-8131(교학 3518 농과대 학생회)  
주최: 동국대학교농과대학생회, 증북제천군농민회  
후원: 동국대학교총학생회 전국농민회총연합

###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서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환기간	상환방법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 이내	0에원소정 납입기간에 대출원금의 공동분할액과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장기학자금	85.8.1 이전대출	원금: 거지기간(제하기간) 경과후 3년내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지기간중에는 대출후 3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납입
	85.8.1-88.12.21 대출액	원금: 거지기간(제하기간) 경과후 5년내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지기간을 포함한 대출후 매월납입
이후대출액	88.12.22 이후대출액	원금: 거지기간(제하기간) 경과후 5년내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지기간중에는 매월, 매 3개월 또는 매 6개월단위로 납입 ·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단위로 납입

주)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공과부예정자는 임명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1년 기한이 경과를 위하여 단국대 기간만큼 거지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연장후 공과부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 하여야 합니다.

###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지 마세요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게 되므로 지금의 학안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용지하여 드리고자 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자정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지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국민들에게 일탈의 계층으로 연체하여 드리고 있는것을 심분 같은 하사이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빠른 시일내, 영속적 기억으로 아주 흥미롭게 영어 낱말을 습득할 최선의力作!

**Build your Word Power!**  
More than 30,000 Words  
Less than in 3 months!

William J. White

# WORD POWER through Roots

배우 아주해

미리하게 무작정 외우려 하지 마라!  
낱말 공부는 원래 흥미있고 딱딱하고 잊기 쉬운 법!  
그렇다면?  
바로 이 속에 그토록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리뷰판/5000원/분봉용지 704매/책크기 30x20cm/정가 9500원

株式會社 語文閣

서울·종로구 권정동 12-23 ● 대표전화/730-5291

# 설크로드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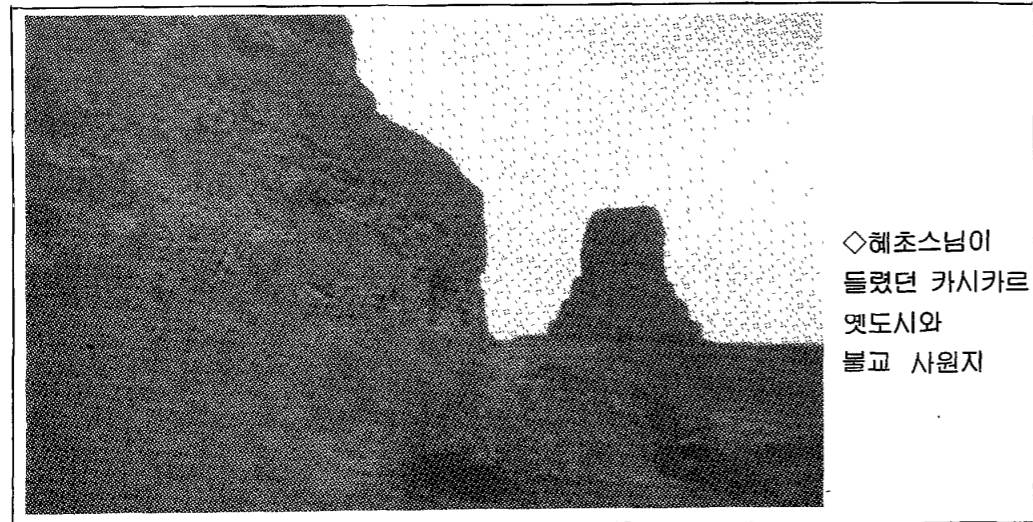
# 求法을 위해 목숨 바친 길

## 곤륜산맥의 빙하...여름엔 홍수초래 8세기 타라스 전쟁후 제지술 서양으로

### 실크로드의 영웅들

실크로드라는 말은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Richthofen)에 의해서 지칭되었던, 아시아와 유럽을 이은 무역교역로이다. 우리들이 보

준비했다. 그러나 이 길을 통과하는 데는 무려 7~8일이라는 긴 일정이 소요되었다. 자동차가 길을 잃은 모래에 빠져 조사단이 모두 내려서 차를 밀어야 했으며, 바람이 불어 모래가 우박처럼 내리는 속에서도 차는 움직여



◇해초스님이 들렀던 카시카르 옛도시와 불교 사원지

통 실크로드라 하지만 이 교역로는 한길이나 여러개의 길이었다. 소위 천산남로, 천산북로를 나누는 천산맥 사이에 두고, 천산의 북쪽과 남쪽 길이었다. 또 다 카라마진사막 남쪽, 곤륜산 북쪽, 즉 사막과 산맥의 가운데를 통하는 소위 서역남로가 또한 실크로드이다.

이 길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을 택했다. 천산남로는 서역남로 보다 사막의 길이가 짧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택했지만, 서역남로를 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같은 본교 조사단이 택한 길은 둔황에서 카슈가르(喀什 Kashi-gar, 疏勒)에 이르는 서역남로 약 6천리 길이었다. 물론 현대적 장비를 동원하여 도중에서 적당한 숙소가 없으면,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으며, 모든 주부식과 식수까지를

야 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개울도 아닌데 갑자기 떨어 닥친 냇물로 차가 갈 수 없도록 홍수가 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곤륜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린 것이다. 그래서 8,9월 한참 더울 때는 홍수 때문에 사막여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기원초부터 사람들은 이 길은 실크로드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기원초부터 이미 불교라는 인도의 종교가 이 길을 거쳐서 중국 땅에 전해졌고, 이어서 극동의 한반도인 이방까지 전파되었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2세기 중엽부터는 안세고(安世高), 지푸가잡(支婁迦讖) 등이 불경을 가지고 중국으로 왔으며, 그들은 가지고 온 경전을 중국의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물론 안세고는 안식국에서 지푸가잡은 월서국에서 왔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길을 통해서 왔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다.

그후 서역남로를 지났던 스님들은 상당히 많았다. 그 중에서도 최초로 중국인 주사행은 우진(지금의 호탄, khotan)에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80세를 일기로 일생을 우진에서 마쳤다. 당시나 지금이나 실크로드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다. 중국사람으로 장진(張進)이나 이광리(李光利) 같은 사람은 한제국의 국가적 목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다녀 오고자 했고, 그들은 많은 隙隙들을 부역이란 목적으로 이 길을 지났던 것이다. 그러나 주사행이나 법현이나 현장은 오직 불교적 구도심에서 이 험난한 길을 걸었던 것이다.

주사행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후 최초로 출가한 한민족 출신의 스님이다. 그는 반야경에 정통하였고, 나

양에서 도행반야경을 강설하였다. 그러나 그 원전이 불완전함을 알고 魏의 갈로 5년(280)에 경안을 출발하여 우진으로 향했다. 주사행은 우진에서 2년5개월간 원전을 구하여, 그의 제자 불여단에게 주어서 중국으로 가져가게 하고, 자신은 80세를 일기로 우진에서 객사하였다. 그후 이 2년5개월간 반야경이 중국에서 번역되니 곧 방광반야경 20권이다. 이처럼 한권의 경전이 번역되기까지는 생명을 건, 구법의 정열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3세기말부터 4세기초에는 지명, 보존등 많은 구법승들이 서역을 향했다. 그 중에도 법현은 율장의 부속본을 구하기 위하여 음인5년(399) 장안을 출발하여, 이 서역남로를 거쳐 스리랑카에까지 갔다가 의희10년(414)에 해로로 청주로 돌아왔다. 그는 여행기 불국기(역류전후기전, 또는 고승법현전이라고도 함)에는 사막의 험난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沙河에는 악귀와 열풍이 심하여 이를 만나면 모두 죽고 한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위로는 날오는 세도 없고 아래로는 달리는 점승도 없다. 아무리 둘러 보아도 땅막하고 가야할 길을 찾으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다. 언제 이 길을 가다가 죽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직 죽은 사람의 해골만이 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어 준다.”

법현은 이 험난한 길에서 모든 동물을 잃고 혼자 돌아와 마하승을 40권과 대반나원경 6권을 번역하였다. 대당서역기의 저자로 유명한 현장도 17년간의 인도구법 길에서 이 서역남로를 통해서 귀국하였다. 현장은 장안을 출발하여 난주, 양주, 감주, 속주 등 하서지방을 통과하여 우리 조사단이 갔던 서역남로를 계획했지만 고창국왕의 청에 따라서 고창으로 나아가 사막의 북쪽인 천산남로를 따라 인도에 들어갔으나, 그 귀로는 서역남로를 통해서 귀국했다. 카슈가르를 거쳐 호탄을 경유하여 니야와 누란을 통과하여 곤명에서서 장안으로 들어오는 강을 따라 배를 타고 귀국하였다.

현장은 계원에게서 유식학을 사사하였고, 또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돌아와 20여년에 걸쳐 대반야경 600권 유가사지론 100권 등 76부 1347권에 달하는 많은 경전을 번역하였으며, 인도에서 배운 새로운 불교학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실로 이들이야말로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교류와 불교발전에 공헌한 혁혁한 영웅들이다.

권기중 (불교학과교수·불교사상사)

### 중앙아시아와 실크로드

본교의 제2차 실크로드학술조사단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교유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 조사단이 관심을 둔 곳은 중국 최서단 도시인 카시카르와 소련의 타시켄트, 사마르칸트, 그리고 페르가나를 품고있는 極東의 아시아내륙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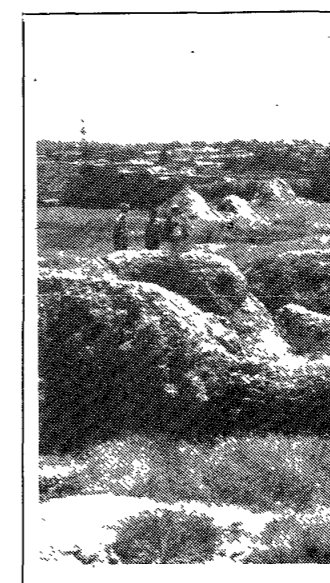
중국의 西安을 기점으로하여 이 지역으로 가는 길은 바로 실크로드, 즉 비단길인 것이다. 漢書西域傳의 기록을 보면 오늘날 카시카르인 疏勒國까지 長安(西安)에서 9천3백55리라고 되어 있다.

우리 조사단이 西安을 출발하여 실크로드여행기 가운데 가장 어려운 행로인 沙漠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 敦煌을 뒤로한 것은 6월19일이었다. 한국사람으로는 처음 탐사했다는 증거를 갖고 황회의 첫발을 내딛었다. 특유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이 이 옛 東西의 交易路에 ‘비단길’이라고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했지만, 끝 비단처럼 매끈하고 부드러운 길은 아담을 실감하였다.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히말라야산맥, 곤륜산맥, 카라코람산맥 그리고 사막의 길을 따라 한없이 같이 行走하고 있는 천산산맥들을 명목으로 하고 황야와 산맥 가운데 열려 있는 길인 것이다. 비로 타림반지와 타클라마칸 사막과 투판 低地의 사막 지대를 횡단하는 交易의 길, 畏途의 길, 그리고 兵馬의 길인 비단의 길이다. 이길의 태반을 점하는 타클라마칸(塔克拉瑪干) 사막의 이름을 위그르말로 ‘살아서 돌아 올 수 없는 사막’이라는 뜻으로 우리 일행도 그 의미를 절감할 수 있었다. 中國의 公路局이 오늘날의 사막의 길을 계속해서 다듬고 있지만, 갈수록 모래바람에 公路를 모래로 덮혀 차바퀴가 빠지기 일쑤였고, 사막의 홍수는 순간적으로 길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다. ‘살아서 돌아 올 수 없다’는 상황과 풍요없이 대면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東西를 잇는 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오아시스인 것이다. 천산산맥과 곤륜산맥의 만년설이 빙하를 이루어 흐르다 녹아 지층에 스며들었던 물줄기가 드문 드문 綠州를 이루어 놓는 것이다. 絲綢之路, 비단길은 이 오아시스의 연결 선상에서 열려진 길인 것이다. 그리고 이 오아시스 綠州에는 산산(鄯善, 樓蘭), 체르첸(且末), 니야(尼雅), 호탄(和田) 등 취미 여행자에 한해 귀로는 적으나 왕국으로 번영을 누리기도 했다. 이들 綠州를 이어 놓는 길이 우리가 처음으로 탐사한 사막의 길 西域南路인 것이다. 이 길은 대체로 천산남로

가 개발되기전까지 東西왕래에 이용되던 것으로, 실제로 이 옛 실크로드가 바로 오늘날의 西域南路와 일치되는 양지만 대체로 접근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어쨌든 우리는 敦煌을 출발한지 닷새만에 중국 신강성 최극서에 위치한 카시카르에 도착했다. 카시카르(疏勒)란 “초목이 타일의 황궁” 또는 “포를 모으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회교사원 모스크는 초목이타일을 주된 色調로 화려하고 장엄하였다. 漢書西域傳에 “저쪽은 大月氏, 大宛, 康居와 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카시카르는 오늘날 소련의 페르가나(Fergana)와는 대략 120km의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고, 사마르칸트와도 적결된다. 그리고 파미르고원쪽으로는 아프카니스탄과도 연결이 된다. 이교도의 요충지이고, 당시로서



◇신라시절로 보이는 벽화가 출토된 아프리카원경 유적지

는 국제적 오아시스였던 것이다. 오늘날 이곳은 위그르족을 주로하여 12개종족이 뒤섞여 사는 인종의 박람회장에 다름없는 것이다. 대체로 중앙아시아 이 지역을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라고 비유하는 학자가 있는데, 매우 걸맞는 표현이다. 위그르인 그 자체가 인종의 도가니에 의한 생생한 표현인 것이다. 中國古文前代에 混血 回紇 烏絕 등으로 기록된 위그르인은 西域의 도가니속에서 용모와 체격이 유럽인을 닮아 우리일행 가운데 회화계가 아닌가 말하는 이조차있을 정도였으나, 古代에 있어서는 순수한 黃色人種이었던 것이다. 10세기경 위그르인들은 투르판盆地로 진입하여 정부자로서 이곳의 인도·유럽 이교와 혼혈하였던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카시카르는 지난날 비단길의 요충지로 동쪽에 서 밤의 추위와 낮의 熱沙를 무릅쓰고 타클라마칸사막을 건너는 여행자에게나, 서쪽의 파미르고원의 험난한 길을 넘어오는 지친 隊商들에게 위안과 다음 여행을 위한 활력을 회복시켜 주던 오아시스였다. 인도에서 귀국하던 삼장법사가 들렀고 마르코 폴로도 이곳에 머물렀던 것이다.

우리 조사단은 일정에 쫓겨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소련의 우즈베크共和國의 수도로 옛날 터어키語로 “돌의 城”이라고 한 石國 타시켄트(Tashkent), 2세기말 이란사람에 의해 건립되었던 大宛國 땅 페르가나(疏勒那, 疏犂), 그리고 中國에 康國으로 표기된 사마르칸트(Samarkand)로 가기 위해서였다.

육로로 간단히 관광 서쪽으로 나아가 테렌(Terek)고개를 넘어 페르가나와 사마르칸트로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우리는 비행기 알타타를 통하여 목적지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소련에서 답사는 위의 도시중심이었지만, 타시켄트의 비극의 역사 속에서 우연이 일어난 한 사건이 후대의 역사에 미친 막중한 영향을 볼 수 있었다. 아랍의 역사가 이븐 알 아르티( Ibn alathir)의 ‘年代’전에 기록된 751년의 타라스(Talas)의 大會戰에서 아랍군이 唐軍이 大敗하였고, 우연히 唐軍포로가운데 製紙技術者가 있어 그로인해 製紙術이 아랍을 거쳐 西歐로 전해진 것으로 西양의 文化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安西節度使 高

홍영백 (사학과 교수·서양사)

### 동약로

“지난달 28일까지만해도 우리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들어 주셨던 양반이 5일만에 마음을 바꾸다... 뜻밖.”

지난6일 본관(C201)에서 열렸던 ‘지계개편의 비효율성에 대하여’라는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행정의 전문화와 업무성적상 직원이 보직을 담당하는 것이 행정 운영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보고 학교당국과 협상을 벌여 왔으나 긍정적 인 평가를 받은채 실재는 외면시 되어 왔다. 심지어 지금의 민중장도 지난달 28일 노조와의 면담에서

### 행정의 전문화



“상당부분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관리처장 임명도 그렇습니다. 학교살림과 관계된 업무는 교수보다도 수십년간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맡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하며 대항되고 복잡해지는 현 대학구조가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노조관계자는 입을 모았다. “진실로 바랍니다. 이번모임은

몇개의 보직처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동국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의 스승님들은 대학을 버려나”라는 이전 노조위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노조원과 노조조직 모두 4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한 비 노조원의 발언은 발언으로 이번 토론회의 다른 의미를 역설했다. “먼저 우리자신을 되돌아 봅시다. 진정한 동국발전을 위해서는 학사나 자기행위와 이기심을 가지고 다른부서 직원들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는지, 심지어 노조내에서 그런런은 없었던가 한번 돌아봅시다. 진정한 동국발전을 위해 직원의 신뢰확립이 그 어떤 보직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참석했던 직원들은 고개가 숙여졌다. 하지만 끝난 토론회의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않고 출담배를 피우며 고뇌하는 직원들의 표정은 많은 어려움을 남겼다. (송태영 기자)

## 가을학기 원서교재·각국 수입도서, 역시 교보문고입니다

### 외서매장 - 장소 옮겨 영업하고 있습니다

- 모든 대학 원서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아판 및 원판 대학교재/각종 컴퓨터 매뉴얼/주요 언어권의 각종 사전
- 세계를 열어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도서 수입공급, 주문대행/ 각종 회화학습용 교재,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 해외 산업·학술 정보자료실이 있습니다. 1991년 6월까지, 지난 1백년간 구미지역의 각종 학위논문 및 특수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검색, 제공해드립니다.
- 국내 도서도 주문하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통신판매 (Tel : 712-5788, 720-6103) 납품상당실 (Tel : 735-6153)
- 문화행사 이메일/외국어한 한국안내서/정부간행물/국내외의 주요 잡지·사건류도 취급합니다.

임시영업장: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2 (충무빌딩) 전화: 739-1328, 4329 (대학로) 736-1115 정무간행물 739-4340

세외산원정보자료실 720-3357

## “세상엔 이런 책도 있습니다”

- 지금부터 도서관에서 취업시험 준비하는 것을 같이 쳐줄 것을 권하는 책
- 학점, 대학, 시험성적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취업하는 책
- 비결이 있다고 주장하는 책
- 이력서란 합격보다는 불합격을 위해 존재한다고 역설하는 책
- 취업한 사람이 꼭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책
- 사원모집광고를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충고하는 책
- 도서관에서 열심히 시험공부만 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는 책
- 면접위원의 정체를 작나라하게 폭로한 책
- 실력보다는 프로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책

이 책을 보고나면 취업시험에 대한 당신의 불안, 걱정, 조조가 말끔히 가십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취업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뜰 것입니다.

취업심리학 신상덕 저  
도서출판 토크 FAX: 274-2134  
판매처: 교내서점 및 지하열문고

## 에이젠스페인 감독노트

나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

거침없는 정신과 열정으로 영화를 위해 살다간 러시아의 천재감독 에이젠스페인의 영화론, 영화작품.

예술의 새로운 시대에 회화와 연극, 음악과 조각, 건축과 무용, 시각적 이미지와 단어의 조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주는 예술이야말로 영화가 아닐까 인간의 사회적, 정신적 활동의 전체를 결합시켜야 하는 필연성이 주요 문제로 떠오른 시대에 영화비평의 거장이며 천재감독으로 알려진 에이젠스페인의 영화미학을 소개한다.

영성세대에게 꼭 필요한 권의 영화책!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값 13,000원)  
553-5933-6 FAX: 552-5149



# 일제하 민중의 고통 뛰어넘기 시도

## 격변기의 월북작가들

한때 우리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 상대방의 문학을 철저하게 금제해왔고 터무니없이 단죄해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문학이 단죄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을 구속하는 일과 같다.

이번 기획은 한국현대사의 급변기에 활약했던,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월북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문체작을 통해 분단된 문학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편집자)

자신이 직접 쓴 '自叙小傳'에 의하면, 현덕은 서울 삼정동에서 태어났고 평화문 근처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두 분 사이가 원만치 못해 공기가 따듯지 못했던 성장환경을 그는 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비참한 집안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식구들은 각자도생으로 헤어졌고, 당국의 집안 인척 근척의 심인 대부분에서 삼사년의 소년시절을 보냈다. 그후 계일교보에 입학했으나 1년만에 중퇴하였다. 심한 열연증으로 거리에 나가기도 두려워 했을 만큼 생활이 병적이었다. 그가 도서관에 접거하면서 책 속에 파묻힌 것도 자제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안간힘이었다. 그가 훗날 현해탄을 건너가 경도의 대관 등지를 떠돌면서 신문배달, 자유노동, 뱃기공 같은 일로 최하층의 생활을 하였으나 끝내 쓰러져 실직을 당했다. 노동관에서 조차 버려진 몸을 이끌고도 귀경할 수 있었던 것은, 즉 거둬 살아보겠다고 재기의 의욕을 보인 까닭은, '최후의 한 가지 일로 지금까지 추방과 같이 동해오던 문학의 길을 밟아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러한 전기적인 경험으로서의 비참한 삶의 궤적은 현덕 자신의 허구적 서사물의 핵이자 중요한 소설, 아동소설, 동화에서 주된 모티브로 은연중에 되풀이되고 있다. 그가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남생이'가 당선되고 그후 '경칩', '녹성'과 '群像' '나비'를 잡은 아버지의 수작을 발표함으로써 신진작가로 상당한 주목의 대상이 되었지만, 불행한 시대적 조건은 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으며, 해방후 조선문학가동맹 출판부장으로 일하다가 6.25때 월북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었다.

'남생이'는 발표 당시에 '현해탄의 최고수준'이니 '경이로

운 신인의 탄생'이니 하면서 신인의 처녀작으로서 일찍이 전례가 없었던 최대의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다. 신춘문예에 당선작치고는 일반적인 분량보다 두세 배 가량 긴 점도 특이한 일이지가, 무엇보다도 당대의 훼손된 삶을 전형적으로 재현하면서 소년의 천진한 눈으로 식민지 조국의 슬픔을 인식하려는 의식의 눈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리얼리즘의 승리'에 값하고 있다. 주인공인 소년 노마는 그의 어머니가 선장일 때 많은 사람에게 귀염을 받는 '항구의 돌방장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어머니가 목선 뱃살을 아꼈던 뱃살에 올라 앉아서 사오인의 사나이들과 섞여 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래 목격하면서부터 그러한 의식의 눈뜸은 비롯되고 있다.

노마는 그런 어머니를 전혀 꿈에도 본 적이 없다. 어머니

는 그곳에서 어린처럼 어린 리를 떨고 일찍이 노마 자신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귀염을 못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닌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계를 엿보게 됨으로써, 소년은 아프게 성숙하고 있다. 그것은 어른들의 만세상을 품고 보면서 참혹한 현실에 비로소 눈뜨는 자에게 떠맡겨진 실존적 세계의 넓힘과 관련된다. 분수가 맞지 않는 옷을 매부시 하면서 화사하게 의출하는 어머니에 대한 놀라움과 낯섬의 정도가 짙을수록, 치명적인 병

은 그곳에서 어린처럼 어린 리를 떨고 일찍이 노마 자신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귀염을 못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닌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계를 엿보게 됨으로써, 소년은 아프게 성숙하고 있다. 그것은 어른들의 만세상을 품고 보면서 참혹한 현실에 비로소 눈뜨는 자에게 떠맡겨진 실존적 세계의 넓힘과 관련된다. 분수가 맞지 않는 옷을 매부시 하면서 화사하게 의출하는 어머니에 대한 놀라움과 낯섬의 정도가 짙을수록, 치명적인 병

은 그곳에서 어린처럼 어린 리를 떨고 일찍이 노마 자신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귀염을 못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닌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계를 엿보게 됨으로써, 소년은 아프게 성숙하고 있다. 그것은 어른들의 만세상을 품고 보면서 참혹한 현실에 비로소 눈뜨는 자에게 떠맡겨진 실존적 세계의 넓힘과 관련된다. 분수가 맞지 않는 옷을 매부시 하면서 화사하게 의출하는 어머니에 대한 놀라움과 낯섬의 정도가 짙을수록, 치명적인 병

**작가연보**

1912 서울출생  
1931 제일고보 중퇴  
1932 시 '불'(신생, 1932년) 발표  
1938 소설 '남생이'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1938~40 중편 '군맹' 및 단편 7편 발표  
1945~48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 출판부장 역임하면서 동화집 3권을 출간함  
1947 소설집 '남생이'(아문각)출간  
1950 6.25때 월북, 생사 불명

모두 거짓부렁이다. 참 설움에서 우러나오는 울음이고야 목정만이 노래 부르듯 경성맞을 수 없다. 치마폭에 얼굴을 싸고 었드리었다. 문득 낮을 드는 때 어머니가 골짜기 뒤로 들어가 텨보와 수근수근 공동모자를 쓸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손가락을 꼬으며 구구 따지는 때, 어머니는 영이

이 아버지가 목연히 내려다보는 걸썩은 바다 저편에는 동태가 이따금씩 끔찍일 뿐, 밤은 괴롭다.

리는 표현에서 잘 암시되어 있다. 아버지는 본디 선장가 노동자였으나 몰살이거니 하고 며칠만 쉬면 병은 점점

할머니보다도 예사롭다.

아버지의 죽음은 소년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권위가 훼손된, 혹은 그것이 상실당한 시대를 뼈아프게 인식하는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 그가 이제까지 시도해온 나무오르기 노력의 바로 그러한 뜻을 품고 있었다. 그가 나무에 올랐을 때, 갑자기 키가 크게 자란 듯싶었고, 그만큼 세상도 달라져 버렸다. 머리 속에는 담배물뿌리를 찾아와 방바닥을 더듬는 아버지가 나타나지만 다

무리해도 형용은 잡을 수 없다. 아버지의 현실적인 부재는 진정한 아버지찾기(Vatersuche)를 향한 정신적 시련의 표징이다.

현덕은 소유의 결핍에 시달리는 향민(香民)의 삶을 일관되게 묘사하였다. 사리사욕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형 주인공 단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편 '群像'(1940)에서도 잘 보여준 바 있듯이, 그는 도시의 언저리에 맨발같이 버려진 집 단적 삶의 저변을 잘 포착하였다. '노마'라는 문제어를 도처에 설정한 점도 동심(童心)천사주의가 참혹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또 그것이 얼마나 무력하게 세계에 순응하는 것인가를 보여준 증거라 일컬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덕소설에서 발견되는 또다른 미덕은 기층에 잔존하는 아름다운 투수에 대한 세심한 주의, 탁월한 서정적 묘사력은 위태롭지 않게 직화하다. 한마디로 평하자면, 그의 소설에는 아름다운 서정시와 같은 위대한 산문정신이 짙게 배어있고, 시적 취향과 그 유연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뛰어난 대응이 걸려져 있다.

제이 잔교 위 옛목판 열이다. 어머니가 노마를 노마 아니로 보아준 약속은, 노마도 어머니를 어머니 아니로 보아주었던 고안이다. 너무 잔잔해 우리같은 바다다. 놀라움 밖에는 더 표현할 줄 모를 커다란 기선이 가로 떠있다. 가난한 사람처럼 해변 쪽으로는 목선이 걸결이 모여서 떠든다.

현덕의 '남생이'는 상징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대에 한 소년에게 의해 진정한 아버지찾기의 뜻을 보여줌으로써 참혹한 현실을 뛰어넘고자 했던 작품이다. 훼손된 시대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소설이라, 오늘날 새로운 가치 탐색의 걸마기기를 시도하려는 우리에게도 이 소설은 여전히 문제적(problematic)이다. 그리고 그가 서정적 리얼리즘의 독창적인 경지를 보여준 점도 특히 우리는 기억해야 하리라.

송희복  
(한국문학 연구소)

### 잃어버린 여가

김병기  
(상경대 무역학과 교수)

여기란 말은 한가한 시간을 가졌다는 뜻으로, 바쁘지 않기 때문에 여가요, 편안하기 때문 여가다. 그런데 현대인의 여가는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바쁘다. 피서를 떠나자면 수영복과 새로운 트렁크부터 정만하고, 지금까지 입었던 옷, 신발, 신발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것으로 갈아입어야 기분이 난다.

모처럼 떠나는 여행이기에 열차나 버스의 출발시간을 알기위하여 전화벨을 울려야 하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차를 운전가게 하고 정비도 받아야 한다. 또 만연이 된 호텔과 모텔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먹고 저리 뒤고, 만만치 아득한 동창생의 명부 찾아 백도 써보고..... 이와같이 늘기 위해서 더욱 바빠지는 이 여가의 역설(逆說)은 피서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절정에 달한다.

차를 빌려가 없어서 몇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남들은 좋은 자리에 비치파라솔을 얻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먼저 서야 되겠는가 하고 이리 뒤고 저리 뒤고 정신 없이 돌아간다.

이와같이 여가가 생존경쟁보다 몇배나 더 쓰라리고, 몇배나 더 치열해진다.

여행의 참다운 동기는 세속을 떠나 일상생활의 바쁜 생활로부터 땅과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여가 피서에는 도시 사람들을 다시 휴가지에서 만난다. 이처럼 원수는 의

여기란 말은 한가한 시간을 가졌다는 뜻으로, 바쁘지 않기 때문에 여가요, 편안하기 때문 여가다. 그런데 현대인의 여가는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바쁘다. 피서를 떠나자면 수영복과 새로운 트렁크부터 정만하고, 지금까지 입었던 옷, 신발, 신발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것으로 갈아입어야 기분이 난다.

모처럼 떠나는 여행이기에 열차나 버스의 출발시간을 알기위하여 전화벨을 울려야 하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차를 운전가게 하고 정비도 받아야 한다. 또 만연이 된 호텔과 모텔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먹고 저리 뒤고, 만만치 아득한 동창생의 명부 찾아 백도 써보고..... 이와같이 늘기 위해서 더욱 바빠지는 이 여가의 역설(逆說)은 피서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절정에 달한다.

차를 빌려가 없어서 몇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남들은 좋은 자리에 비치파라솔을 얻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먼저 서야 되겠는가 하고 이리 뒤고 저리 뒤고 정신 없이 돌아간다.

이와같이 여가가 생존경쟁보다 몇배나 더 쓰라리고, 몇배나 더 치열해진다.

여행의 참다운 동기는 세속을 떠나 일상생활의 바쁜 생활로부터 땅과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여가 피서에는 도시 사람들을 다시 휴가지에서 만난다. 이처럼 원수는 의

### 우리말을 찾아 ②

개정된 맞춤법

합설, 입매, 접매가 표준어

개정된 한글맞춤법 제31항에서는 '두말'이 어울릴 때 '남'소리가 '우'소리가 된다는 것은 소리는 대로 적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합설'과 함께 '합설' (대싸리×) '합설(매설×) 벌써 (벌써×) 입매(이매×) 입설(이설×) 접매(저매×) 접설(조설×)로 적기로 했다.

싸리(前) 쌀(米) 씨(種) 등은 옛글에서 '뿌리, 쌀, 씨, 씨'로 쓰이다가 접두사와 결합하여 합설이나 파생어를 이루는 '대싸리, 매설, 벌써, 이매'로 표기되고 이것이 '매설, 벌설'의 두형태로 됨으로써 '매설, 벌설'의 두형태로 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제정론이 유행하는 시대에 중국 북동부 하얼빈 지역이다. 이 소설은 대만·약집지주 타도과정과 자기 운명의 주체로 일어서는 농민들의 모습, 지주타도가 성공한 이후의 도시 분배과정,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작가 주립파는 1908년 호남

### 새로운 책

청년들이 나를 믿고 오라거라  
노신 서한집

'노신'은 세계의 많은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혁명문학가이다. 또한 한 사람의 문학가에게 앞서 병든조국, 신봉하는 대륙을 부름과 안고 온몸으로 피로와하고 온몸으로 사랑

### 청년들이 나를 믿고 오라거라

노신 서한집

해운 중국의 초상이기도 하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분

### 폭풍취우 (상·하)

주립파(周立波) 지음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제정론이 유행하는 시대에 중국 북동부 하얼빈 지역이다. 이 소설은 대만·약집지주 타도과정과 자기 운명의 주체로 일어서는 농민들의 모습, 지주타도가 성공한 이후의 도시 분배과정,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작가 주립파는 1908년 호남

### 우리말을 찾아 ②

개정된 맞춤법

합설, 입매, 접매가 표준어

개정된 한글맞춤법 제31항에서는 '두말'이 어울릴 때 '남'소리가 '우'소리가 된다는 것은 소리는 대로 적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합설'과 함께 '합설' (대싸리×) '합설(매설×) 벌써 (벌써×) 입매(이매×) 입설(이설×) 접매(저매×) 접설(조설×)로 적기로 했다.

싸리(前) 쌀(米) 씨(種) 등은 옛글에서 '뿌리, 쌀, 씨, 씨'로 쓰이다가 접두사와 결합하여 합설이나 파생어를 이루는 '대싸리, 매설, 벌써, 이매'로 표기되고 이것이 '매설, 벌설'의 두형태로 됨으로써 '매설, 벌설'의 두형태로 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제정론이 유행하는 시대에 중국 북동부 하얼빈 지역이다. 이 소설은 대만·약집지주 타도과정과 자기 운명의 주체로 일어서는 농민들의 모습, 지주타도가 성공한 이후의 도시 분배과정,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작가 주립파는 1908년 호남

##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딛고 어드레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는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욕의 현장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

# 학생자치기구 감사 '빠진척'

## 1학기 통산 감사 2개 단대만 마쳐

### 총대 감사에 대한 인식부족 지적...강력대응

11개 단과대 1학기 통산 감사 및 학생회 중앙기구 감사가 계속 지연됨으로써 학생회 2학기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총대의원회는 각 단과대 대의원의장에게 단과대의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을 조절할 것을 결정해, 지난 1학기 중앙 감사 특위의 통제를 벗어난 단과대 감사특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상대, 공과대만이 통산감사를 실시했을 뿐 9개 단과대는 감사일정조차 준

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학생회 중앙기구는 종연, 출결위원이 감사가 완료됐고 총학이 오늘(11일)까지 완료되며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의는 정계차원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산, 사업 및 공약사항 이행, 학생회조직으로 나뉘어 실시되는 1학기 통산감사가 단과대 운영위, 집행부회의 등 회계제를 비롯한 1학기 학생회의 총괄적인 사업을 평가, 질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단과대 감

사주체 및 피감사자의 감사에 대한 인식부족이 감사지연의 주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출결위를 제외한 11개 단과대 중앙기구는 아직까지 1학기 사업평가서 및 2학기 사업기조를 제출하지 않아 학생회 강화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오늘(11일)까지 총학 총무부를 마지막으로 총학감사를 마무리짓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총대 중앙위에서 총학감사 보고, 단과대 통산감사 실시동의 안건을 논의하며 중앙 감사특위 차원의 단과대 통산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실시할 것을 검토한다.

**식공과 체육대회 학술발표회도 가져**  
공과대 식공공학과는 국내

최초로 개설 30주년을 기념하여 졸업한 선배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대운동장 및 만해광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축구, 농구, 족구를 비롯해 인강운동, 리어카 릴레이 등 다양한 경기와 윷놀이, 배구, 마시, 윷놀이, 윷놀이 등이 진행된다.

한편 10월에는 개설 30주년 기념행사로 '농화학회'와 '식품학회'를 열고 학술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백상기교내 야구대회**  
아마추어야구회(L.A.E)에서는 동국인의 단합과 체력증진을 위해 '제12회 백상기교내야구대회'를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우승팀인 일문대를 비롯해 모두 16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우승팀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되며 모든 참가팀에게 기념품이 증정된다.

# 동국가든 불매운동 조짐

## 라면값등 일방 인상으로 마찰 빚어

동국가든 라면값 인상문제로 공과대학생회측과 동국가든측의 세차레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마찰을 빚고 있다.

공과대는 지난 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10일과 오늘(11일) 양일간 각 과별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내일(12일)부터 무기한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공과대의 이번 결정은 2학기 개강후 라면값이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올랐는데도 라면 값의 향상이 종전과 달라진게 없자 지난 9일까지 세차레 협상 과정에서 김치제공과 라면절할상을 요구했으나 동국가든측이 인내와 보충금인상을 내세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과대 총무부장 홍종

욱(전기4)군은 "이번 사태는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가격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내차원에서 학교적영향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국가든측은 보충금과 임대료가 지난 3월이후 20만원이 인상돼 이윤이 얼마남지 않고 공과대의 협상을 통해 라면에 떡을 넣어 주고 있다고 밝혔다.

# 학생회체계 복구 결의

## 학생회비·교지대인상 미확정

총학생회 2학기 정기학생대표회의(의정=정우식·철학4)가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학원관(소강당)에서 총 87명중의 결정속수에 미달한 40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정기학생대표회의에서는 상반기 사업총화, 운영, 조직, 학자부 부분에 걸쳐 진행되고 모범단위 발굴 발표, 학생회비 및 교지대 인상안 논의, 하반기 정세전망과 동양의 나아갈 길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상반기 운영사업의 오류와 한계를 분석해 내고 이후 올바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번 학대대표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학생회비 및 교지대 인상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로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학대대표회 각 주체가 이후 서면으로 통해 인상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상추진운동을 학자부 사업의 하나로 세워 동국의 자긍심 고취와 불교세력과의 연대, 통일운동의 발동국적 확산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하반기 정세전망과 동양의 나아갈 길에서는 국제정세로 미국의 신질서개편과 동북아정세분석, 소련사태의 관점정립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하반기 사업의 전망으로 비핵군축 투쟁으로 서명운동 전개와 이완된 학생회 체계 복구등을 결의했다.

**국운과 히람제**  
공과대 국민윤리학과(회장=남경부·3)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괴동화행사인 제6회 히람제를 괴동문물과 재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명진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예년의 경우 11월로 기간이 정해졌던 히람제는 9월로 예정되었던 문과대 명진화문화회의 일원으로 개최기로 했으나 무산되자 국민윤리학과 단독으로 행사를 갖게된 것이다.

이번 행사가 일정을 살펴보면, △26일=체육대회, 퀴즈대회 △27일=히람노래자랑 △28일=윤리화회의 발(연극, 모닥불을 지피고 선-후배의 만남, 대동놀이)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기획행사도 사전준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과학생들의 이력제 모습과 저금의 모습을 담은 사전을 게재하는 등 과친목과 협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역교과 추계답사

동학농민봉기 유적 등 사범대 역사교육과는 현장답사의 일환으로 '추계교과답사'를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떠난다.

교수, 학생 등 80여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답사에서는 전북 일대의 불교교과와 동학농민봉기의 유적, 황토현 전적지 등을 경유해서 광주 5·18묘역을 들리는 것으로 이번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한지붕세가족담(?)**  
이웃에 새로운 '한지붕 세가족담'이 이사를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통합선언을 갖고 한지붕아래 살게 될 신·민·민주 양당이 그 집주인 공동인데, 92~93년 총선, 대선 앞두고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보이며, 이와 반대로 한지붕 세가족은 금슬좋은 한지붕

# 학생회비 예산분배안 통과

## 야총 지원금 40만원 지급키로

2학기 학생회비 분배안 심의를 안건으로 한 총대의원회 중앙위가 지난 5일 오후 5시 총대의원실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 합의한 분배안이 통과됐다. 중앙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중앙위는 △2학기 학생회비 분배안 심의 △여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안 등을 안건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비분배안은 지난 3일 열린 제2차 예산분배소위에서 합의한 것으로, 1차 예산소위에서 논란이 됐던 야간경리총학생회 특별지원금과 총학이월

금이 각각 40만원, 60만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총대-야총간의 마찰을 빚었던 야총 특별지원금삭제부분이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통과됐으나, 이에 대해 야총은 독립채산을 강력히 요구,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2학기 학생회비 분배안은 오는 26일 총대 중앙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관리처 신설등 직제 개편 서운길 교수 관리처장 임명**  
학교당국은 관리처 신설등 직제 개편에 따라 지난 9월 11일자로 일부 보직을 개편했다. 이번에 인사는 △관리처장=서운길(불교학과교수) △취임

파장=안종욱(전 후생복지과장) △구과과장=이병천(전 총무과) 등을 임명하였는데, 아울러 서울·경주 직원인사도 단행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난 9일 사범대 앞 풀비니 등산에서 포카를 치고 있는 학생들. 이런 모습이 학교에서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송태영 기자)

# 2학기 운영계획을 듣는다-③ 교수회·노조

## 침체된 조직 활성화가 과제

**교수회**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수의 연구활동과 권익보장에 기여하고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교수회(의장=김장호·국어교육학)가 지난 8월19일 정기교수총회 이후 침체상태에 놓여있다.

교수회는 지난해 총장선출문제 이후 지금까지 뚜렷하게 나타난 성과물이 없고 사립학교법 개정이 있은후 1학기 황필호(철학)교수의 제임을 탈락과 관련 교수제임용에 대한 방안조차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 8월19일 1학기 정기총회를 열면서 △교수제임용 문제 △교수회규정 개정시안 △교수회 감사선출문제 등을 안건으로 논의를 가졌으나 확정된 사안이 나오지 못했다.

이에 교수회는 오는 27일을 전후로 서울·경주 합동대의원회를 열어 2학기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사안을 내을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수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의 하나는 학내외적 사안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학내에서 크게 부각되는 사안이 터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 외부적으로 가시적인 심도보다는 좀더 근원적이면서 심도 깊은 자체논의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출범할 때부터 진통을 겪으며 힘들게 출발한 제4대 직원노조(위원장=이진배·경상대 교학계장)는 지난 8월 23일 출범식 및 창립3주년 기념식을 갖고 2학기 운영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를 세웠다.

출범 초기부터 직원노조가 진통을 겪은 이유는 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인식과 단결력의 부족에 기인된다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직원노조의 운영사업 자체가 학교총장선출문

제를 비롯 대외적인 정치분쟁과 연립된 사업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한 역감소비를 함으로써 노조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4대 직원노조는 기존의 사업에 대한 한계와 오류를 분석, 평가해내고 2학기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체적인 사업기조를 보면 △연합된 노조 체계복구를 통한 조합원간의 단결력 고취 △행사와 일상적인 사업 중심으로 추진 △직원의 복지문제 강구 △직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기어 등이다.

특히 직원노조는 직원들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 학교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 마련과 학원체로서의 직원위상사업이 이번 2학기의 중점 운영방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부)

# 1학기 부업알선 89.3%

취업과는 1학기 부업알선현황을 지난 5일 최종 집계, 발표했다.

취업과의 부업알선 집계 따르면 희망자 2천8백40명(남 2천28, 여 8백12) 중 총 2천5백38명(남 1천7백52, 여 7백86)이 알선돼 89.3%의 알선율을 보였다.

직종별 부업알선 실적은 보면 사무보조원이 3백87명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시험감독, 설문조사원, 행사안 내원 등의 알선율도 증가추세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학기 알선현황과 비교하면 알선율은 30%,

# 고시특강 실시

**헌법등 3강좌 개설**  
고시반지도위원회(지도교수=이순용·법학)는 오는 12일부터 10월8일까지 본교 고시생들의 폭넓은 고시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고시특강을 실시한다.

과목은 민법I, 민법II, 헌법 등 3과목이며 기차, 형법 등은 25일 추후 공고한다.

접수는 계산 고시학사사감실에서 받으며 수강료는 각각 5천원이고 강의는 학원관(J201)에서 실시된다.

# 라면 값 불리기

○...목적물 공대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여성상수·직원의 자리싸움(?)이 아닌 행정업무 전문화를 위해 직원이 처장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 해져. 더욱이 고수들이 보직을 맡을 경우, 책임의 의식감이 줄어들어 학생들에게 피

# 민자의 인스턴트(?)아합에 대응할 새일곱...한지붕 한가족 '민주'

해를 주게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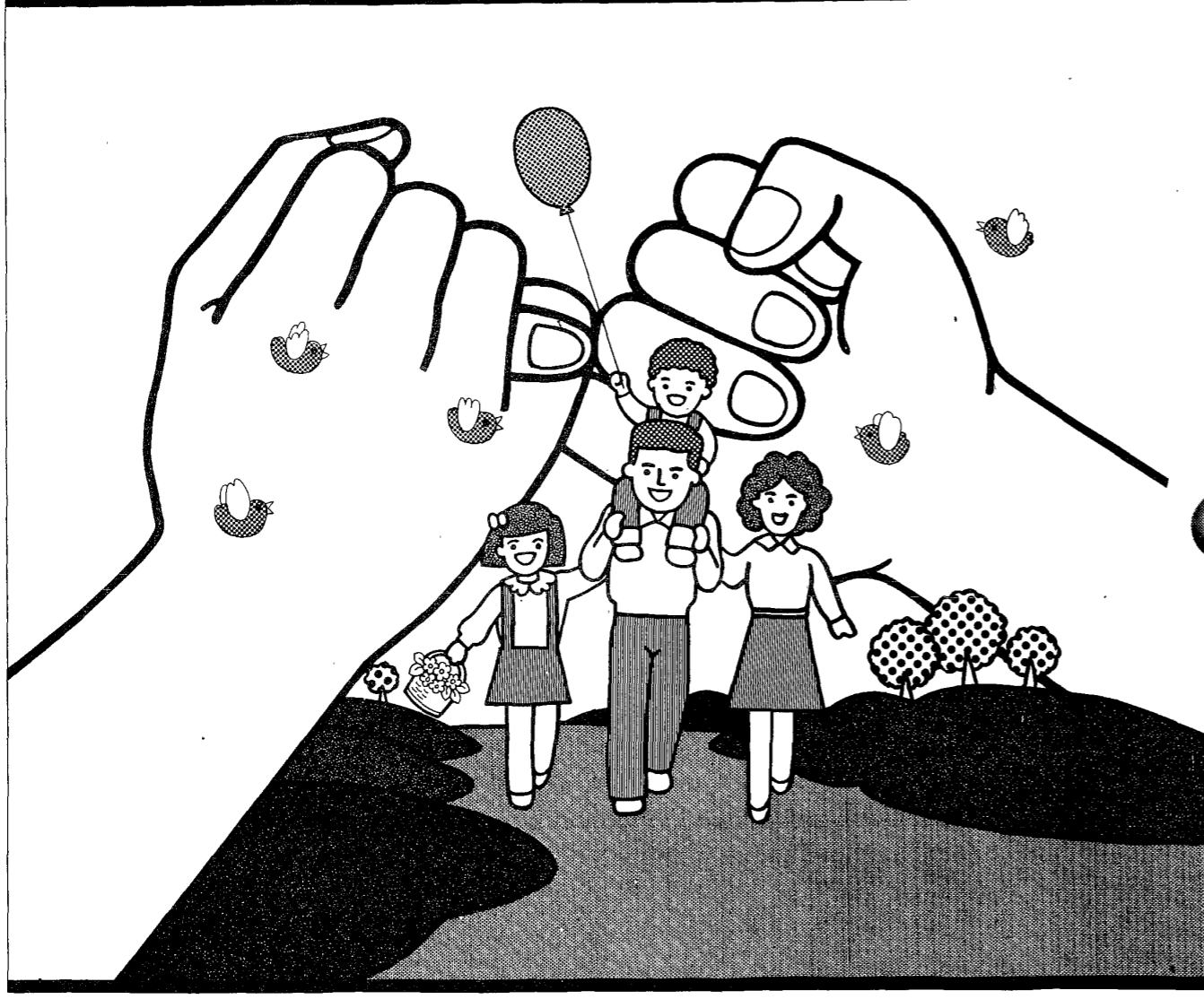
이에 본회전무대자 "누가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3년도 안돼 파혼설(?)

# 사공과 불상

○...화합과 연대의 계기로 삼으려던 불상중진이 상호불신의 장으로 뒤바뀌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씁쓸.

불상중진을 놓고 학교당국과 학생회가 각각 추진위원회 구성해 놓고 일을 벌이려고 해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는데 지난 9일 학교당국은 교무위원회에서 이문도 달리



# 함께 질사는 사회, 함께 누리는 풍요-효성

기술과신뢰의 효성그룹이 번영의 21세기를 약속드립니다.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 각자가 좀더 맡은 일에 믿음과, 좀더 마음을 모아 힘을 쏟는 일.

이러한 믿음과 화합의 정신이 모여 모두가 함께 질사는 풍요로운 사회의 바탕이 됨을 효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역, 섬유, 화학, 전자, 중공업, 라이어, 피혁, 건설 등 각 산업분야에서 쌓아온 기술과 신뢰로 고객 여러분과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효성.

효성은 믿음과 화합의 힘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질사는 풍요롭고 행복한 21세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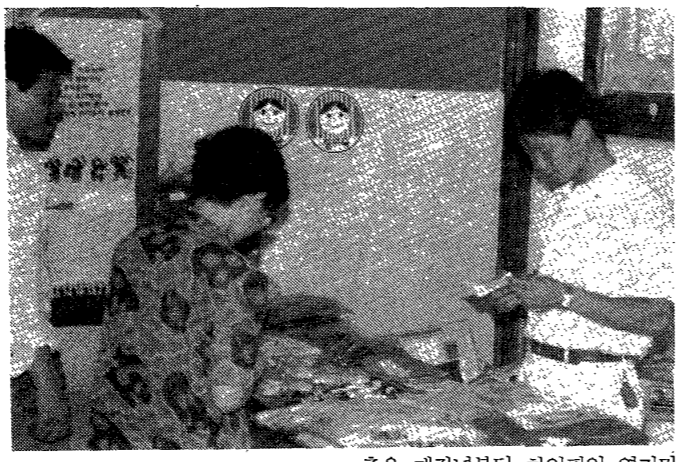
- 曉星物産 ● 東洋나인 ● 東洋물리메터 ● 東洋染工 ● 曉星重工業 ● 曉星巴士 ● 曉星인도메이션시스템
- 曉星데이타시스템 ● 曉星B&H ● 曉星드라이버트 ● 曉星인이어링플라스틱 ● 東光化成 ● 曉星ABB ● 曉星에버라
- 曉星타이어 ● 曉星國産 ● 大田皮革 ● 東星 ● 大星 ● 曉星金屬 ● 曉星機械 ● 東星開発 ● 曉星ASC



다항관 복지매장 건설을 바라보며

- ... 학생복지위원회는 복지매장설치를 2학기사업의 중...
- ... 오히려 과제로 내놓았다. 본란에서는 교수·학생·직원의...
- ... 요구를 담고 있으나 89년부터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 ... 복지매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의의를 실는다.
- ... (편집자) ...

# 복지매장 설치로 '목역공동체' 건설



배려가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여 학생을 위한 화장실·약세사리점 등 유동과정을 줄임으로써 매우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고, 국산 화장품 홍보와 약세사리문화개조에 일조를 하도록 한다. 스포츠의류용 품점은 비싼 운동기구, 스포츠의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건강은 보약이 아닌 운동에서 비롯함을 알려 사회체육을 활성화시킨다.

반세기동안 미국·일본 등 외세문화에 쫓겨다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문화, 우리의 일초보다는 청바지를, 시루떡보다는 햄버거를 더 좋아하는 시대이다.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외치면서도 수입상품보다는 식민지문화에 정든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박동우·국문 4 이하 학부위)는 이처럼 외세문화에 의해 설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2학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복지매장건설이 바로 그것.

현재 학부위는 보리수(다항관 2층)에서 수경과, 우리차, 보리수 입구에선 우리옷, 학교육물품 등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익숙한 우리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일상적이 아닌 상설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것이 복지매장 설치를 통한 목역공동체 건설이다.

## 복지혜택-생활문화운동 경제·문화적 의미 겸해 건설상문제 범동악인 차원에서 풀어가야

문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컴퓨터·전자매장을 설치,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 워드, 타자기 등을 판매하며 여행사는 MT, 수학여행, 해외여행, 귀향차편 등 정보제공, 예매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들어선다. 또 2천4백여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복지혜택과 함께 휴게실로 이용할 수 있는 미장원을 설치한다. 사진관은 시간·사진품질 보증을 지어 졸업식·입학식 등의 행사 진행시에 외부업자를 통해함으로써 사진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기획사는 최첨단기자재를 설치하여, 엄청난 물량이 그대로 외부로

이던 복지매장건설은 경제적,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영리추구가 아닌 사업이므로 가격을 3~4배 뛰이오르게 하는 유통과정을 단일화함으로써 외부유출을 막고 수익금을 학내로 전환시켜 학교발전기에 기여한다. 둘째, 일상적 지속적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해 우리의 입거리, 먹거리, 놀이문화를 창조한다. 셋째, 교수·직원·학생의 기쁨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소양을 기르도록 한다.

복지매장이 건설되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곳을 뛰어다녔던 것과 달리 많은 이들이 손쉽게 이용, 일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방안을 학교

▲90년 1월 22일 은 시대의 아이러니를 연출했던 날로 알려진다. 각 부문간의 연대속에서 지속적인 탄압을 겪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 민선운동의 핵으로 부상한 것과 여소야대의 정국을 여대야소의 정국으로 역전(?)시켜놓은 자칭 구국의 결단 민주자유당의 창당이 그것이다. 이날 전자는 후자의 탄압속에서 결성식을, 후자는 전자를 불법단체로 규정, 최하등의 탄압을 하며 창당선언을 했던 '시대의 대 아이러니'로 기억된다. ▲항간에 야인들의 통합논의가 오르내리며 세간사람들의 구경수가 되고 있다. 박정호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이듯 폭풍전야를 연상케하는 지금의 정국을 볼때 이런 통합논의는 국

민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으로 부상하는 일로 앞으로의 일이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지도체제의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각당이 자신들의 이권을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려는 당리당략에 지나

대에서 둘러리로부터 인식되지 못했고 국민들의 의견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이용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이 내년과 내후년에 있을 한관관들에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92-93 권력 재편기를 우리의 승리로 이끌 가장 강력한 무기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합논의는 92-93을 맞이하는 민선세력의 단일한 대안으로써 야당·제야·학생·농민·노동자 모두가 하나로 결집되고 자신들의 이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民衆을 위해 民衆과 함께 하는 민주대연합의 초석으로 자리잡아야한다. 가시적인 이권보다는 앞으로의 전진을 생각한다면 대표를 누가하느냐보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민주대연합속에서 함께 투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浩>

### 민주대연합

지양아 이를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실망을 금치못하게 한다. 이번 통합논의에서 제1야당과 또 하나의 야당 그리고 제야인사들이 함께 추진해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기대를 하게 하는데 이같은 이권싸움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비친 야당의 모습은 정치부

## 민속문화 얼마나 아십니까

조금있으면 한가위이고 고향을 찾아가는 인파가 거리를 매우게 될 것이다.

늘 맞는 명절이지만 그 명절에 즐기는 전통 공동체놀이는 어느새 우리에게 낯설어져 버렸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의 공동체놀이를 살피면서 조상들의 슬기와 생활의 멋을 배우고자 한다. <편집자>

### - 거북놀이편 -

한가위는 1년중 달이 가장 밝을 때이다. 여름 땀별 아래서의 횃뎀을 호미씻기(7월 15일 전후)로 마무리하고 비, 수수, 조의 이삭을 골라 묶어 가동이나 벽에 걸어 놓는 올세신니로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나면 추석이 다가온다. 한 해의 농사를 매듭짓고 밝은 달 아래서 한해 농사의 보람을 즐기는 때가 한가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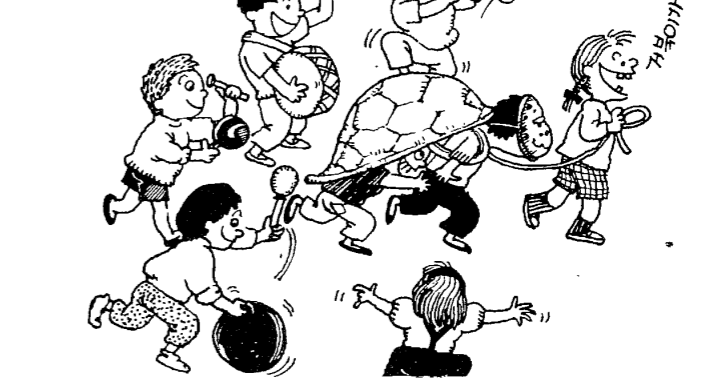
배불리 먹고 모여든 사람들은 휘영청 밝은 달아서 술래잡기, 꼬리타기, 문턱넙기 등 여러가지 놀이판을 벌이는데 이 중에서 손꼽을 수 있는 놀이 중의 하나가 거북놀이이다.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풍물과 함께 한껏 즐기는 거북놀이는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수수대, 쥘, 대나무 등으로 거북모양을 만들고 두 사람이 앞·뒤에 들어가 거북 시늉을 한다.

②거북이 앞에는 거북몸이가 거북의 등에 줄을 매어 물고 다닌다.

## 무병장수 기원한 대동놀이



◇거북놀이는 마을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가운데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풍물과 함께 즐기는 공동체 놀이이다.

③거북이 뒤에는 풍물패가 따르고 그 뒤에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줄줄이 따른다.

④일행은 풍물을 치면서 등대를 한 바퀴 돈 다음 비교적 부유한 집을 찾아 간다.

⑤대문 앞에 이르러 거북몸이가 "이 거북이가 동해 바다를 건너 여기 왔습니다"하며 풍물을 울린다.

⑥집주인이 나와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와 많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면 거북몸이가 앞장서서 집으로 들어가고 뒤따라 일행이 들어간다.

⑦집에 들어가면 마당을 한 바퀴 돈 후 풍물을 울리며 춤을 추고 난다. 이때 노래 잘 부르는 이가 축복의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풍물패는 한 귀퉁이 끝날 때마다 쟁과리를 친다.

⑧이렇게 한바탕 놀다가 거북이가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북몸이가 "쉬-"하고 손을 저어 춤과 풍물을 중단시키고 집주인을 향하여 "이 거북이가 동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이 빠져서 누웠으니 먹은 것을 좀 주십시오"한다.

⑨집주인은 떡, 과일, 술은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내어 놓는다.

⑩일행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음식을 먹는다.

⑪음식을 먹은 뒤 거북몸이가 거북을 보고 "거북아, 먹어도 나왔으니 이제 인사나 하고 가자" 하면 거북이 집주인을 향하여 넙죽 절하고 잠시 한바탕 뛰어놀다가 또 다른 집으로 간다.

이 거북놀이는 가장 오래 살고 병이 없는 거북의 탈을 쓰고 풍겨 온 풍물을 맞추어 춤추고 노래함으로써 마을의 집기 집신을 축고 거북과 같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전래놀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거북놀이는 그간의 고된 노동으로 긴장된 심신을 축제(놀이)로 풀이주는 한 예이다.

조상들은 이런 놀이를 통해서 마을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마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들을 자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대동놀이가 점차 사라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정신까지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다. 우리의 것을 좀더 알고 보존하여 조상들의 공동체 놀이의 정신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김정화 <놀이연구회>

본사에서는 東國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주도해나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6회 東大文學獎' 작품을 모집합니다. 특히 이번 제6회부터는 내일을 기하기 위해 응모자격을 본고장으로 제한하여 상금을 인상하는 한편, 신년호에 입상작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들끓는 문학열정에 힘입어 더욱 권위있는 문학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 음

◇모집분야

詩 부분: 3편 내외  
小說 부분: 60매 정도(2백자원고지 기준)  
評論 부분: 60매 정도( )

제6회 ◇동모요일

응모자격: 본고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1년 11월18~11월22일까지  
시 상: 시 부·본상15만원, 장려상10만원  
소설부·본상25만원, 장려상20만원  
평론부·본상25만원, 장려상20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발표: 1992년 1월 1일자 東大新聞 紙上  
작품제출처: 본사 총무부

※제출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1991년 9월 10일

동대신문사



송태영 (15)

학교도 00 거북도 00  
사학재단만 내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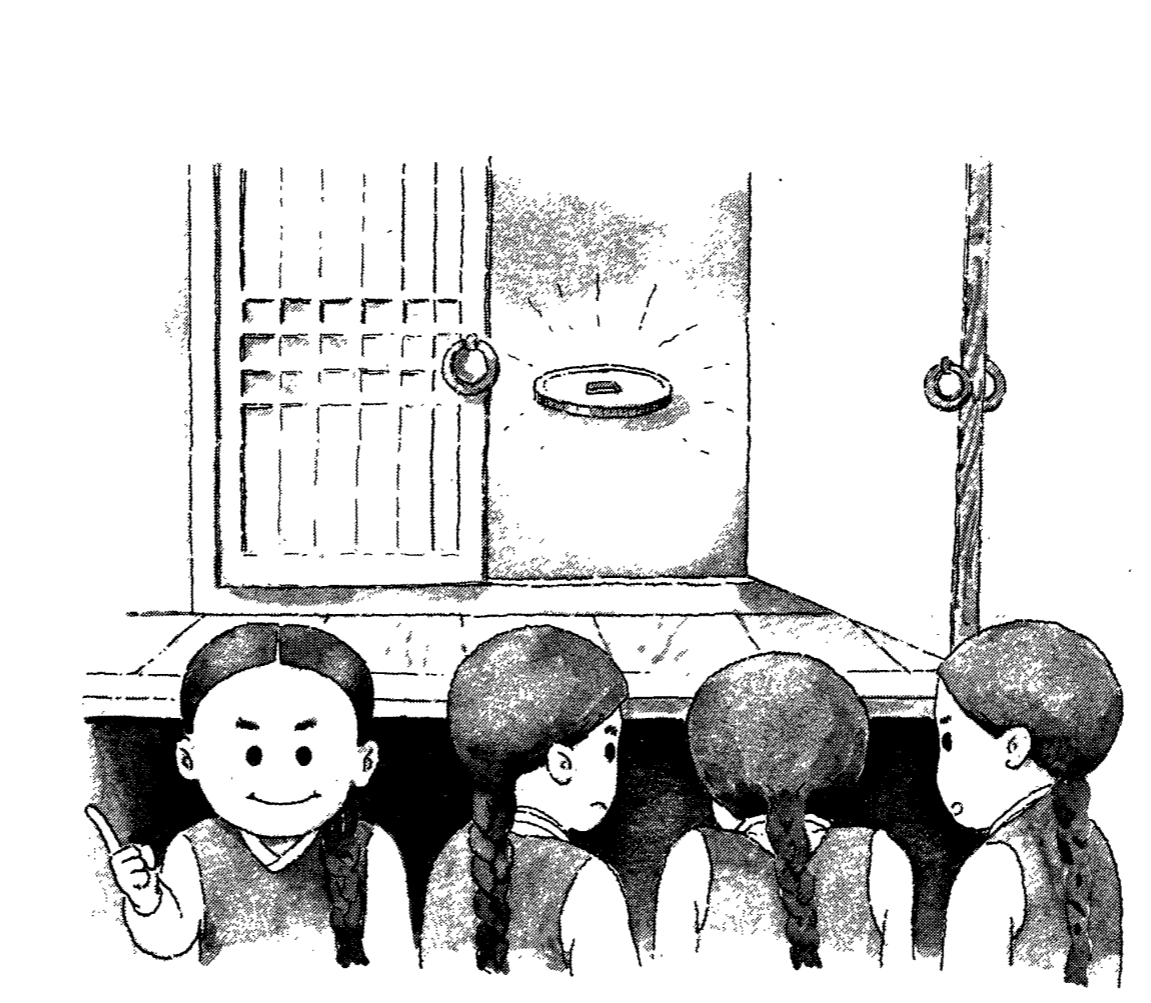
정박부 부터 획기적인  
해결방안...

오~ 내 이빨을  
멀마 기다렸던...

항상 하다가...  
해방이란기  
수익금을 안해  
부채 줄것!

## 세계로, 미래로

누가 동전 한 닢으로 이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가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누가 동전 한 닢으로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훈장님이 동전을 내밀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난감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다.

이윽고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동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나그 동전으로 양초를 한 자루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학생이 양초에 불을 밝히자 그 빛으로 방안이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응하는 슬기와 진취적사고— 바로 동양그룹이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동양그룹은 사고의 혁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미래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